

중국 원정 장기이식 폐해 속출

불법 수술 부작용·합병증 무방비 ... 광주지법, 8명 알선 60대에 벌금 1천만원

광주 유명 의사 신장 이식 후유증 영향 숨져

안전성 논란 속 줄기세포 이식까지도 급증

장기나 줄기세포 등을 이식받기 위해 중국으로 향하는 국내 환자들의 발걸음이 늘어나면서 불법 원정 수술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 환자는 국내에서 이식받을 장기가 없어 원정 수술을 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불법 수술에 따른 위험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민섭 판사는 23일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중국 원정 장기이식 수술을 알선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여·62)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중국 산둥(山東)성 엔타이

(煙臺)시 한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지난 2006년 3월부터 4년여에 걸쳐 환자 8명으로부터 모두 3억52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장기이식 수술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국내에서 신장을 찾지 못한 환자들에게 중국 사형수 등의 신장을 이식해주는 대가로 2600만~1억 7000만원을 받았다. 김씨의 알선으로 중국에서 신장을 이식받은 광주지역 한 유명 의사의 경우 후유증을 호소하다 끝내 숨졌다.

또 2009년에는 30대 회사원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의 소개로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가 현지에서 숨지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 원정 수술은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원정 수술 환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신장 등 장기 부족으로 인해 국내에서 장기를 찾지 못한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법 수술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 및 곁수, 각막이식 대기자는 모두 1만7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실제 장기를 이식받는 비중은 전체의 10%를 밑돌고 있다.

또 최근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줄기세포를 이식받는 사례까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줄기세포는 손상된 간이나 피부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치료제 등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광주에 사는 B(여·52)씨는 “중국에서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뒤 암이 발병했다”며 줄기세포 공급업체인 A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줄기세포 이식과 암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패소했다.

박씨는 2009년 4월 A사 측에 1500만원을 주고 자신의 복부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했으며, “미용에 좋다”는 A사 측의 권유를 받고 4개월 뒤 중국 연길의 한 병원에서 줄기세포를 이식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이식 1주일 만에 왼쪽 목에 혹이 발생해 같은 해 9월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판매한 A사와 이 회사로부터 치료제를 구입해 환자들에게 시술한 5개 의료기관을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한파보다 무서운 무관심

목도 홀로사는 70대 냉골방서 쓸쓸한 죽음

수십 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홀로 혼자 지내던 엄모(78·목포시 죽교동)씨. 당뇨까지 앓던 엄씨였지만 하나 뿐인 아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난 지 오래돼 그에게 관심을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45분께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나눠주는 쌀을 전달하기 위해 엄씨의 집을 방문한 택배회사 직원 박모(28)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2명이 누우면 딱 할 정도로 좁은 방 안에서 엄씨가 반듯이 누운 채 숨져 있었기 때문이다. 엄씨는 두꺼운 겨울 점퍼를 껴입고 있었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던 한 겨울이었지만 엄씨의 집에서는 전기장판이나 난방기구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음식을 조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와 냉장고도 없었다. 부엌에는 언

제 먹은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말라 비틀어진 배추김치만 남아 있었다.

나무로 불을 지퍼 난방을 하는 엄씨의 집은 방갈 그 자체였다. 그의 집 아궁이에는 난방을 위해 필요한 빨감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인데다가 지병까지 있는 엄씨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23일 한파로 노인들이 잇따라 숨지자 특별 순찰대상을 지정, 수시로 혼자사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는 등 이들에 대한 관심과 봉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나원침 (8228) 김장동



철거 중 건물 들어가

구리선 훔친 50대 검거

‘함바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재소환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동부지검에 다시 출석했다.

감색 코트 차림의 강 전 청장은 현재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지난 2009년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

(65·구속기소)씨에게서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8월엔 유씨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강 전 청장이 유씨를 통해 이 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의 인사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등 금품 수수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했다.

연협뉴스

광주동부경찰청은 23일 철거중인 건물에 들어가 구리선 40kg 가량을 훔친 남모(54)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새벽 4시경 광주시 동구 충장로 4가의 철거 중인 한 건물 공사현장에 들어가 철거업자 홍모(48)씨의 30만원 상당의 구리선이 들어 있는 포대 한 자루를 가져온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삼가 계단이나 지하철 등지에서 노숙을 하며 지낸 남씨는 이날 시내를 돌아다니다 자루에 들어 있는 구리선을 발견, kg 당 8000원 하는 구리선을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순찰 중 우연히 포대 자루를 들고 가는 남씨를 발견, 검문한 뒤 남씨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양승훈기자 yang@kwangju.co.kr

“바람 피운다” 내연녀 살해

익산경찰 50대 검거, 범행 숨겨려 동반자살 서

익산경찰은 23일 내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50·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경 익산시 장인동 자신의 원룸에서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내연녀(42)와 말다툼을 벌인 뒤 노끈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내연녀가 숨지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동반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도주한 뒤 유독자살을 기도했으나 생명을 지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가정사 참견 마” 흥기 들고 피출소로

상다발

“아내를 폭행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수갑을 채운 데 앙심을 품고 흥기를 지닌 채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2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0)씨는 지난 22일 밤 10시15분께 서부서 모 파출소에서 흥기를 들고 들어가 윤모(45)경사에게 “앞으로 집에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10여일 전 베트남 출신인 아내를 손찌검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는데, 경찰에서 “남의 가정사에 경찰관이 간섭해 기분 나쁘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연탄 나누기 ... 사랑의 행렬

광주시청 소년활동진흥센터와 아름다운 가게, 사랑의 물레산타 광주본부회원들이 22일 오후 광주 서구 회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사랑의 원정대’ 발대식을 가진 데 이어 월산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법원 “종교·제사 문제 불화 이혼사유”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종교와 제사 문제 등으로 가정 내 불화를 겪던 이모씨가 부인 윤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들 부부가 이혼하도록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제사 문제로 다투고 집을 나간 뒤 양가가 재결합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윤씨와 이씨가 헤어지기로 결론을 내리는 등 2007년 4월 이후 부부가 감정을 회복하지 못한 채 현재는 유대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

했다. 두 사람은 2006년 결혼한 이후 제사 등 유교 전통을 중시하는 이씨의 집안과, 어머니가 교회를 운영하는 윤씨 집안의 종교적 차이로 극심한 불화를 겪었다.

그러던 중 2007년 설이 일요일과 겹쳤을 때 윤씨가 제사를 지내러 가자는 시부모의 요구를 “교회에 가야 한다”며 거부하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자녀를 데리고 친정모로 가 버렸고 이씨의 외할아버지 생활은 이때부터 파국으로 치달았다.

연협뉴스



근로정신대 협상기금 모금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22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 용봉문화관에서 ‘99엔 문제해결’과 ‘근로정신대 협상기금 마련’을 위한 희망 릴레이 모금행사를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기도박 처벌 사기죄? 도박죄?

대법, 사기죄 처벌만 가능

사기도박은 사기죄로만 처벌할 수 있고 도박죄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도박)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4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들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라는 수단으로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사기도박은 우연성이 결여돼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신모씨 등과 속칭 ‘쌈’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전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모델로 신씨 등을 불러 미리 표시가 된 화투로 사기도박을 벌여 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협뉴스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강남 1 일